

《향량, 산유화로 지다》 저자 정창권과의 대담

순장殉葬된 작은 역사 밝히는

특별한 학자의
특별한 글쓰기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눈앞의 것이 아닌 전체 통찰의 필요성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지리멸렬 숲을 보아온 역사에 있어서 만큼은 그 명제를 전복해 볼 필요가 있다. 역사의 큰 틀 속에, 작은 것들의 진실은 순장殯葬의 뭇을 감당해야 했다. 《향량, 산유화로 지다》의 저자 정창권 씨는 순장된 작은 역사를 발굴해 우리 앞에 숨은 진실을 거듭 밝혀 보였다. 전작《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에서 미암 유희춘의 〈미암일기〉를 통해 16세기 조선시대의 양반 생활사를 보여줬던 그는, 이번 《향량, 산유화로 지다》를 통해 17세기 조선시대의 서민 가족사를 가감 없이 내보였다. 이번 책이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작은 역사를 감싸안는 한편, 그것들을 왜곡했던 시대에 맵쌀 일갈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친족 및 혼인제도, 재산상속 등 남성위주로 재편되는 17세기 한국 가족사의 변혁기를 살핀 그는 중심인물 향량의 자살을 통해 당시의 '열녀만들기 프로젝트' 까지 과감하게 까발린다. 《향량, 산유화로 지다》가 갖는 현재적 의미와, 살아 있는 작은 역사를 발굴하는 그의 학문적 의미는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향량, 산유화로 지다》의 기획은 어떻게 이뤄진 것입니까?

일찍이 제 관심사는 역사의 거대담론이 아닌 작은 역사에 있었습니다. 역사란 큰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의 부분 부분이 역사이지요. 살아 있는 우리 역사를 써보자는 생각으로 앞의 책《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와 함께 《향량, 산유화로 지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에 사료史料 수집을 마치고 2002년부터 원고집필을 시작했습니다.

전작《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가 16세기 양반의 생활사를 다루고 있다면, 이번 책은 17세기 서민의 가족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연작으로 보아도 좋을 만큼 시대를 읽는 마이크로한 시선은 동일합니다. 전작과 구별되는 점이라면 양반에서 서민으로 그 계급을 달리했다는 것인데, 이런 변화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조선시대 각 세기마다 주목해야 할 특색이 있습니다. 포커스를 그것에 맞추다보니 자연 양반에서 서민이라는 계층변화가 이뤄진 것이지요. 17세기 조선시대는 특히 문제적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가족사가 17세기를 기점으로 크게 달라지지요. ‘향량과 그의 가족사’는 작은 부분이지만, 각별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향량을 통해 왜곡된 계모의 성품, 처가살이가 사라진 결혼 풍속, 쉽지 않은 이혼과 재혼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지요. 여성사에 있어서도 17세기 조선시대는 확실하게 파헤쳐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책에서도 쓰고 있듯, 16세기만 해도 균등한 재산 상속, 학문과 예술활동 장려 등 여권 존중의 전통이 살아 있는 시대였습니다. 당시 죽은 남편을 위해 아내가 쓴 관중서櫛中書를 보면, “자네 항상 내게 이르되, ‘둘이 머리 세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자네’라는 호칭은 당시 여성의 지위를 입증하는 사례기도 하지요. 문제는 조선시대가 아니라 17세기인데, 어떤 시대적 변화들이 있었는지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난 국사의 혼란기였습니다. 잦은 전쟁 속에 중요한 것은 생존의 문제였겠지요. 그 전까지 부계와 모계가 공존했고 남녀간의 입장과 권리도 동등했는데, 혼란기 속에 살아남으려면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되었겠죠. 성리학, 나아가 주자학이 전 사회적으로 침투한 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의 가장 정점은 권력에 있습니다. 정치적·사회적 특권을 세습한 문벌가문의 권력은 대단했지요. 문벌사회가 도래되면서 가부장제는 정착을 이룹니다. 여권을 상실한 여성들은 오직 집안에서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보조자의 역할만을 하게 되었지요. 17세기 전주 이씨가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장편소설 《소현성록》을 보면 권력에서 탈락되는 여성들의 양상이 제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7세기 조선시대 가족사를 대표할 인물로 향량을 내세웠는데, 꼭 향량이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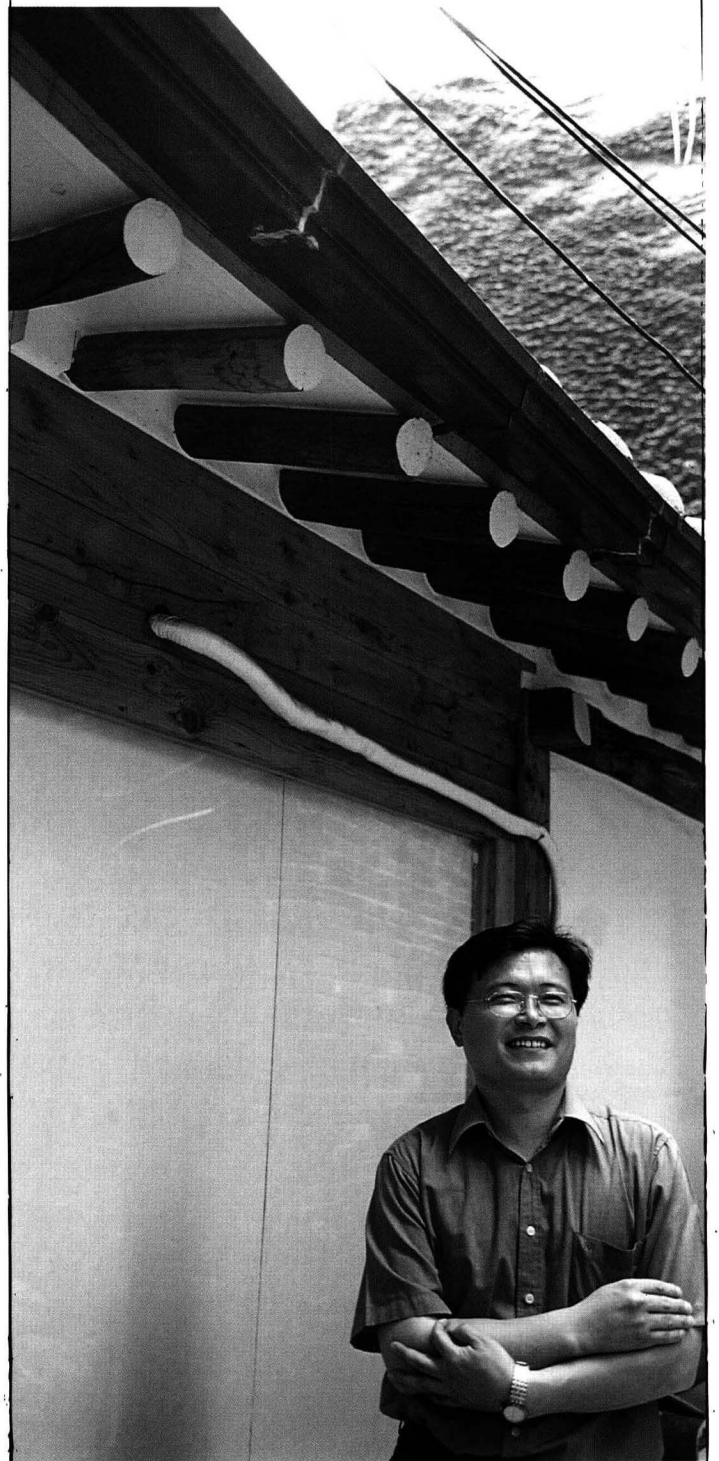
국문학과와 역사학자에게 향량은 친근한 인물입니다. 서민층 여자이면서 이혼 후 재가하지 않고 자결한 열녀로 전해지지요. 지조와 절개가 양반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여인이라,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 추대되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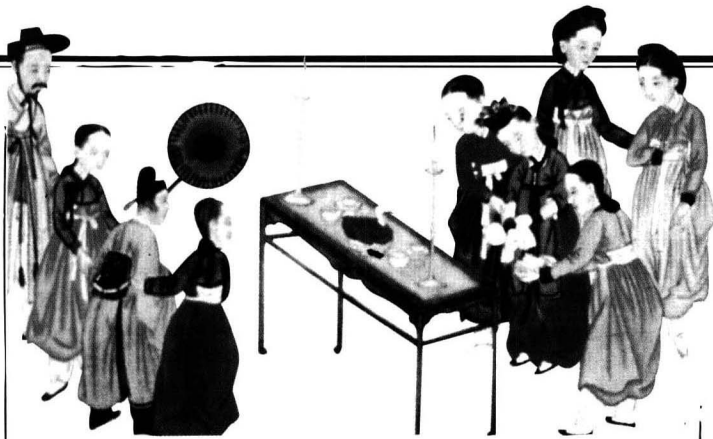
선생님은 향량의 그러한 기본사료를 완벽하게 전복시켰습니다. 향량의 죽음을 시대 혹은 가족사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재해석하셨지요. 더하여 당시 시대의 '열녀만들기 프로젝트'를 까발리는 대목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것들이 가능한 지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현재도 “조선시대 서민층 여자가 그랬다니 정말 대단한 여자다” 하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시대의 희생자'라는 평가를 진즉 내리기도 했지요. 향량은 열녀가 아니다, 라는 정의를 내렸지만 그것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사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니 향량은 가족사의 변혁기에 낀 세대로 시대에 희생된 여성임이 수월히 증명되었죠. 앞서 가부장제의 정착이 문벌사회 때문이라 했지만, 권력을 갖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암투도 대단했습니다. 열녀의 고장이라 지목되는 순간 누릴 수 있는 권력과 혜택은 배가되었으니까요. 많은 지역에 열녀비가 있는데, 그것들을 뒤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적 폭력에 희생된 향량과 같은 여성이 없으란 법이 또 없지요.

독자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남녀평등의 흐름이 17세기에 이르러 완벽하게 무너지는데, 권리와 입장이 동등했던 당시 여성들이 잠자코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반발의 양상, 혹은 그것에 대한 기록은 어떻습니까?

잠시 고려사를 짚어보지요. 고려말기 공녀제도의 피해를 줄이고자 일부다처제를 시행하자는 남성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성들이 어땠냐 하면, 개성시대로 모두 몰려나와 일부다처제 시행을 거부하는 강력한 집단시위를 했습니다. 그러한 반발이 17세기에 왜 없었겠습니까? 역사기록에 없을 뿐이지요. 역





기산 김준군의 풍속도 중 <흔레>
조선조 말기의 흔레풍속을 엿볼 수 있다.

사가 남성의 이야기, 곧 히스토리라 그런 사실이 누락되었으리라 짐작됩니다. 한편 가부장제 정착의 책임에 있어 여성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제 견해이기도 합니다. 여자에게 자신보다 더 큰 테두리가 집안이지요. 집안이 존재해야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여성들이 집안의 힘을 키우는 데 있어 동조했던 부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향랑 사건으로 본 17세기 서민층 가족사’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향랑을 통해 계모 문제, 결혼풍속, 이혼과 재혼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 여성사라고 보는 것이 더 가까워 보입니다.

가족사와 여성사는 따로 놓고 볼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가족사를 말하다보면 여성사가 운명적으로 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사와 장애인사를 공부했는데, 지금까지도 여성사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16, 17세기의 여성사를 제대로 짚어보면 그들이 잡히지 않을까 해서 의식적으로 몰아갔던 부분도 있습니다.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향랑, 산유화로 지다》등을 통해 미시사의 중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일기를 통한 우리 생활사 엿보기>라는 논문도 눈에 띄는데, 미시사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글이 미시사의 축을 이루고 있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미시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보는 저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서양 미시사와의 비교를 언급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요. 서양의 경우 공문서와 사문서라는 객관적 기록과 달리 우리의 경우 사대부의 기록이라 미시사의 진행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미시사와 거시사의 결합, 미시사를 통해 역사를 얼마나 잘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역사학의 관점은 늘 염두하고 글을 씁니다. 생활사 역시 역사이고 보면, 그 시대의 무엇이든 밝혀낼 수 있어야 하지요. ‘현재의 나와 그 주변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것이 제가 가진 역사의식입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말하며 엘리트적인 것만 드는데, 역사에서 소외된 사람, 사건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픽션과 논픽션이 혼재된 독특한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 생활사, 가족사를 밝히는데 그것만큼 좋은 기술記述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유연성을 갖고 있는 까닭이지요. 그런 글쓰기에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체로 풀어 쓴 것은 일반인들을 위한 배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인 만큼 이야기의 어떤 부분도 허구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지요. 사소한 부분이라도 역사적인 정황을 따져 사실을 벗어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했던 즐거운 고충도 있었지요. 책에서 ‘조구상’의 허위의식을 비판하는 ‘예방’이라는 인물도 시대적 정황을 살펴 등장시킨 인물이지, 그저 만든 인물은 아닙니다. 대화체에서 간혹 주관적인 입장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16세기 양반의 생활사, 17세기 서민의 가족사를 복원했습니다. 18세기 조선시대를 밝힐 다음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부분을 주목하실 건가요?

18세기 조선시대는 문화의 부흥기입니다. 한편 그것과는 다른 입장으로 장애인과 사회복지에 관한 작은 역사를 살펴볼까 합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분배의 문제는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예전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18세기의 주류 테마는 아니지만, 그 속에서 조선시대가 가진 희망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미암과 향랑처럼,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적당한 인물을 찾았는데, 현재 사료조사중에 있습니다. **▶**

취재 박용두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